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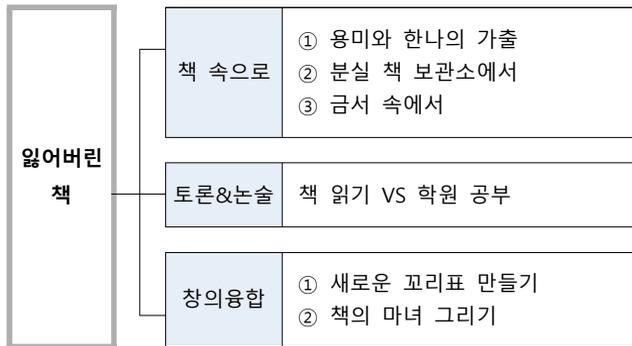
## 읽어버린 책

- \* 글 : 서지연
- \* 그림 : 제딯
- \* 출판사 : 웅진주니어
- \* 정가 : 10,000원
- \* 분량 : 144쪽
- \* 대상 : 초등 5학년

### · 책 소개

이 작품은 책의 마녀를 만나기 위한 용미와 한나의 책 속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그렸습니다. 분실 책 보관소는 누군가의 손을 떠난 책들과 기억에서 희미해진 책 속 주인공들이 머무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주인공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쓸쓸한 장소이기도 하지요. 점차 사라져 가는 주인공들을 구하기 위해 용미와 한나가 발 벗고 나섰다. 첼로를 타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치며 도착한 책 속 세상! 용미가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던 특별한 모험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졌어요. 검은 파도와 글자 숲을 지나고 무시무시한 트롤과 하얀 나라 마귀할멈을 피해 둘은 책의 마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이 책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질문으로 만들어보세요.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예)	이국적인 분위기인데,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일까?
①	
②	

2. 다음은 이 책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로, 이 책에는 다른 책 속 주인공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여러분이 읽어본 작품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캐릭터를 찾아보세요.

용미는 버스에 책을 두고 내리는 바람에  
단짝 한나와 함께 분실 책 보관소를 찾는다.  
그곳에서 둘을 맞이한 건 놀랍게도 책 속 주인공들이었다.  
<살롯의 거미줄>의 월버,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비버, <꼬마마녀>의 아브라삭스 등.  
이들은 용미와 한나에게 마법을 풀어  
사라져 가는 자신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

3. 이 책은 '제11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아래 글은 이 책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입니다. 심사평을 보고, 이 책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점과 어떤 기대감이 드는지를 써보세요.

**우리 시대 아이들의 고민과 책의 위기를 매력적인 판타지로 풀어낸 작품으로,  
개성 있는 캐릭터와 흥미로운 사건 전개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

 독서 중

1. 『잃어버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 아이들의 고민과 책의 위기가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서 아래 (예)처럼 정리해보세요.

	페이지	내용
우리 시대 아이들의 고민이 드러난 부분	(예) 10쪽	한나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가출을 하면 내가 했지. 용미 네가 왜 해? 네가 나처럼 학원을 몇 개씩 다니냐. 첼로 연습하느라 밤을 새우기를 하나? 게다가 너희 엄마는 우리 엄마처럼 이래라저래라 쪼아대지도 않잖아.” ⇨ 엄마가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이 너무 많음
책의 위기가 드러난 부분	(예) 49쪽	비버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우리 모두 행복했어요. 책마다 마법의 힘이 그득해서 누구나 우리를 읽어 줬지요.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도서관이 늘어도, 서점이 생겨나도, 우리를 찾아 주지 않아요. 저기 책 위에 쌓인 먼지들이 보이나요?” ⇨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음

 독서 중

2. 『잃어버린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구조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해당 부분	내용 요약하기
발단	(예) 1. 첫, 비밀이야 2. 내가 넣어질 곳 3. 모험을 시작하다 (8~29쪽)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		



##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용미와 한나의 가출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긴 나도 책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가출 같은 건 꿈꾸지 않았을 거다. “클로디아, 나 모험을 즐기고 올게. 어떤 비밀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

나는 책등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그리고 걱정할 엄마를 위해 메모도 간단히 남겼다.

나용미, 모험을 떠나다.

(나) “우리 엄마가 원장들한테 그러더라. ㉠ ‘엔 집중력이 떨어져요.’, ‘끈기가 없어요.’. 나, 일곱 살 때부터 첼로 레슨 빠진 적 한 번도 없어. 열이 펄펄 나도 받았거든. 근데 끈기가 없다니.”

한나 표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코딩이라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 입력하는 대로 군말 없이 로봇이 움직여. ‘가.’하면 가고 ‘와.’하면 오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 그 로봇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 그런데 넌 어디 가?” 한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나는 한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다독여 주고 나서 허리를 굽혀 속삭였다.

“오늘이 디데이잖아! 나의 모험이 시작되는 날!”

한나는 눈이 동그래져서 날 올려다보다가, 이내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보았다. -중략-

한나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리본 핀을 잡아 빼더니 바닥에 휙 내던지며 말했다.

“나도 같이 하자, 가출!”

1. ‘나’(용미)와 ‘한나’가 가출을 결심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니(용미)	
한나	

2. (나)에서 엄마가 학원 원장들에게 ㉠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한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나’의 입장에 공감하며 써보세요.

⇒

3. (나)에서 ‘한나’가 ㉡처럼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분실 책 보관소에서

※ (1~2) 다음은 용미가 읽다가 버스에 두고 내려 잃어버린 책 <살롯의 거미줄>에 나오는 돼지 율버가 책 속에서 나와 용미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하, 여기 있네요! <살롯의 거미줄>.”

나는 반가운 마음에 비버에게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책을 빼낸 자리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저 작은 틈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커다랗고, 하얀 덩어리였다. 하얀 덩어리는 부스럭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뒤집어진 코에 하얀 피부, 통통하게 세 겹으로 접힌 목. 오동통한 배…….

“깹!”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한나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오약!”

그때 하얀 돼지가 나를 향해 달려들며 말했다. “너라면 날 찾아올 줄 알았어!” -중략-

“용미야,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 어젯밤에도 같이 놀았잖아. 네가 나한테 용기를 줬잖아. ‘율버야, 힘내! 살롯이 분명 널 도와줄 거야. 넌 절대 베이컨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말이야. 네가 있어서 난 힘낼 수 있었어.” -중략-

“세상에! 내가 정말 율버라고?”

1. 분실 책 보관소에서 만난 여러 책의 주인공들과 각 책의 주인의 인연을 정리해보세요.

책의 주인공	나오는 책	책의 주인	주인공과 주인의 인연
 에드워드			
 아브라삭스			

2.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누구를 만나면 가장 반가울까요? 책의 4~5쪽에 나와 있는 [용미의 모험에 함께한 주인공들] 소개를 참고하여,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책의 주인공을 소개해보세요.

[그림]	[소개]
------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금서 속에서

※ 용미와 한나가 책의 마녀를 찾아서 금서 속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겪은 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간 용미와 한나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트롤'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 책의 마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게 되었나요?

⇒

2. 트롤이 사는 동굴을 빠져나온 뒤, 새하얀 나라로 간 용미와 한나는 후회만 하며 살고 있던 '마귀할멈'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

3. 잠의 숲을 지날 때, 용미는 이 책에 등장하는 괴물이나 무서운 생명체들에 대해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습을 빈 이파리에 펜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중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아래 이파리 위에 그려보세요.

북극권에 산다는 '울트라'라는 꼬마 요정      동유럽 물귀신 '보디아노이'



4. 용미와 한나가 만난 책의 마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아이들을 계속 기다려 왔어. 책의 마녀가 될 용기 있는 아이만이 나를 찾아올 거라 믿었지. 너희가 이 책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켜봤다. 너희는 내가 낸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단다.”

만약 책의 마녀가 낸 세 가지 시험(트롤, 마귀할멈, 잠의 숲) 외에 한 가지 시험을 더 추가한다면, 용미와 한나에게 어떤 시험을 내는 것이 좋을지 써보세요.

⇒



### 독서 후 토론&논술\_ 책 읽기 VS 학원 공부

\* 다음 글을 읽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책 읽기와 학원 공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토론해보세요.

“쫓, 용미는 어디 안 보내요? 이제 곧 5학년인데 저렇게 놀려서는 안 되지.” -중략-  
 “쫓, 그러다 큰일 나지. 쫓쫓, 아직은 티 안 나도 5학년부터는 뒤로 딱딱 쳐질걸. 일단 영어 하나 넣고, 2학기에 수학 넣어야지.”  
 한나 엄마가 말을 줄줄 늘어놓자, 엄마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아직 어린대요, 뭐. 책 좋아하니 책이나 읽히…….”  
 짹짹 한나 엄마의 가위 손씨가 엄마보다 한 수 위다.  
 “일단 영어부터 넣어야 한다니깐, 쫓쫓. 아, 여기 볼륨 좀 더 넣어 줘요.”  
 한나 엄마는 어찌나 뭉 넣는 걸 좋아하는지 자꾸 넣으라는 소리만 늘어놓았다. 다행스럽게도 드 라이어가 웅웅 소리 내며 한나 엄마의 말을 빨아들었다.  
 한나 엄마가 나가자마자, 엄마는 문밖에 대고 수건을 털었다. 머리카락이 날려 내가 껌껌거리도 더 세계 탈탈탈 털어 냈다.  
 “무슨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또 뭐? 애들이 언제 놀고 책 읽으라는 거야? 여유가 있어야 책을 읽지.”  
 그러더니 빗자루를 가져와 딱딱 쓸기 시작했다.

주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책 읽기와 학원 공부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책 읽기가 더 중요하다.	학원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근거 :	근거:



### 독서 후 창의융합 ① 새로운 꼬리표 만들기

\* (가)는 용미와 한나가 잠의 숲을 지날 때 보았던, 자신들의 등에 달린 꼬리표에 적힌 내용이고, (나)는 현실로 돌아온 이후, 사라져가는 책의 주인공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용미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가)의 형식을 참고하여, (나)의 내용에 어울리도록 용미와 한나에게 새로운 꼬리표를 만들어주세요.

(가)

#### ◆ **나용미** ◆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지닌 마법사.  
모험심이 많고 책을 즐겨 읽는다.  
사는 곳: 서림 미용실 창고

#### ◆ **강한나** ◆

예술가 기질을 타고난 모범생.  
엄마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사는 곳: 학교 - 학원 - 레슨실 - 학원

(나) “어제 조회 수 봤어? 만이 넘었어!” 한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책의 마녀라면, 이 정도는 해 줘야지!”

나는 스마트폰을 책 위에 올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연습하지 않아도 말이 줄줄 나왔다.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책을 소개하는 BJ, 용미와 한나입니다! 오늘은 분실 책 보관소에 있던 <꼬마마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꼬마마녀와 더불어 그의 가장 멋진 친구 아브라삭스까지 만날 수 있지요. 여기 책 주인이 적어 놓은 편지도 있군요.” -중략-

“이 책의 주인공과 친구가 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책의 마녀들 용미와 한나였습니다!”

녹화를 끝내자 쌓여 있던 책 사이사이에서 팝콘처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방학이 이렇게 끝나다니. 우리의 탈출은 너무 짧았어.”

나는 감춰 둔 책들을 한나에게 내밀며 정글 웃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지. 난 다시 떠날 거야. 어떤 모험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 ◆ **용미와 한나** ◆



### 독서 후 창의융합 ② 책의 마녀 그리기

\* 다음 글은 용미와 한나가 드디어 책의 마녀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상상했던 것과 달리 책의 마녀는 착한 마녀였고, 형태 없이 신비한 음성과 빛 그림자로만 존재했지요.

그때, 거실 중앙에서 까만 구름이 뭉개뭉개 피어올랐다. 커다란 책 그림자 같기도 하고, 시커먼 연기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림자라고 말하기에는 눈부셨고, 연기라고 말하기에는 반짝거렸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기에서 내뿜는 소리 같았다. 한나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중략- 처음 들어 보는 신비한 목소리였다. 귀가 아니라 가슴에 들리는 목소리 같았다.

-중략- 그림자 빛이 내는 소리가 너무도 신비해서 감히 일어나거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혹시 책의 마녀이신가요?” 한나가 머리를 들며 물었다. 역시 질문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한다.

“그래, 모두 날 책의 마녀라고 불렀지. 이젠 힘을 잃고 이 책에 숨어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책의 마녀가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 글에 나타난 본래 책의 마녀가 가진 능력을 떠올리면서 책의 마녀 모습을 상상하여 거울 속에 그려보세요.

책의 마녀는 책에 대한 모든 마법을 부린다. 책의 마녀는 책 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한번 책의 마녀의 마법에 빠지면 도서관과 서점을 넘나들며 책을 고르고, 사 모으고, 끊임없이 읽으면서 책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정작 마법에 홀린 사람들은 그것이 마법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고 착각한다. 책이 있는 곳이라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책의 마녀의 마법이 존재하며, 한 번이라도 그 마법에 빠지면 평생토록 강력한 마법의 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 [예시답안과 가이드]

### ■ 독서 전

#### 1. (예시답안)

- 어떤 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
- 표지 그림에 보이는 두 인물은 어떤 관계일까?
- 표지 그림에 보이는 거울과 새, 집은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등

#### 2. 답안 생략.

3. (예시답안) 우리 시대 아이들의 고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부담이나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책을 점점 멀리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다룬 이야기일 것 같다. 뻘하지 않고 통통 튀는 인물이 등장할 것 같아서 기대된다.

### ■ 독서 중

#### 1. (예시답안)

	페이지	내용
우리 시대 아이들의 고민이 드러난 부분	19쪽	“아직은 그렇지. 이제부터 뒤처지면 어떡해. 한나 엄마 말따마나 선행과의 싸움이라잖아. 딴 애들은 학원 가서 다 배우고 오는데, 너만 학교에서 처음 배우면 아무래도…….” ⇒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24쪽	한나는 어제 학원 투어를 끝마쳤다고 했다. 학원 투어는, 새로운 학원을 정하기 전에 한나 엄마의 탐색이 시작되는 2주간의 코스다. 한나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교육 컨설턴트가 코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지 강의하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 빨리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투어에 나섰다. 한나 엄마는 팬잡은 동네 학원 정보를 입수해서 목록을 만들고, 한나는 그 일정에 맞춰 체험 수업을 들은 모양이었다. ⇒ 너무 많은 사교육을 받아야 함
책의 위기가 드러난 부분	40쪽	“책은 잃어버린 걸 알면서도 찾으러 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책이 분실물 보관소로 들어오면 바로 이곳으로 보내 버려요. 안 찾으러 올 걸 아니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누리끼리하고 먼지가 소복한 책들이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다.

## [예시답안과 가이드]

		⇒ 사람들이 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음
	119쪽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책의 마녀가 부리는 모든 마법의 길을 막아 버렸다. 아무리 서점으로 유인하는 마법을 부려도, 표지를 통해 사람들을 홀리는 마법을 쓰어도 소용없었다. 책의 마녀의 마법은 점점 그 힘을 잃어 갔다. ⇒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됨

#### 2. (가이드)

- 발단: 인물 소개, 배경 제시, 사건의 실마리 제공
- 전개: 사건의 본격적 전개, 인물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나타나기 시작함
- 위기: 인물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심화, 절정을 유발하는 전환의 계기
- 절정: 갈등과 긴장의 최고조, 해결의 실마리 제시, 주제 부각
- 결말: 주인공의 운명 결정, 갈등과 긴장의 해소

#### (예시답안)

내용 요약하기는 생략.

	해당 부분
발단	1. 첫, 비밀이야 / 2. 내가 넘어질 곳 / 3. 모험을 시작하다 (8~29쪽)
	↓
전개	4. 분실 책 보관소 / 5. 와닿을 때 일어나는 일 / 6. 책에 쌓인 먼지 7. 주인공을 살리는 방법 (30~68쪽)
	↓
위기	8. 책의 마녀를 찾아서 / 9. 거인과 책 벌레의 습격 (69~86쪽)
	↓
절정	10. 하얀 나라 할멈과 꼬리표 / 11. 잠의 숲을 지날 때 (87~112쪽)
	↓
결말	12. 그림자 빛의 정체 / 13. 진짜 마법 / 14. 새로운 가출 계획 (113~141쪽)

### ■ 독서 후

#### ◎ 책 속으로 ① 용미와 한나의 가출

#### 1.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니(용미)	클로디아처럼 신나는 모험을 하기 위해서
한나	엄마의 로봇처럼 사는 것이 슬프고 힘들어서

- (예시답안) 그 동안 노력해온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니 무척 속상하고 허탈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 (예시답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로봇과 다를 바 없다는 것

◎ 책 속으로 ② 분실 책 보관소에서

1. (예시답안)

책의 주인공	나오는 책	책의 주인	주인공과 주인의 인연
 에드워드	<에드워드 톨레인의 신기한 여행>	한나	한나가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신 책. 책속 이야기에서 에드워드가 애빌린과 헤어질 때 화가 난 나머지 한나가 그 페이지를 찢어버림
 아브라삭스	<포마마녀>	은우	은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처음 만났고, 은우 엄마가 침대에 누워 하루에 몇 장씩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면 은우는 눈을 감고 이야기를 상상하며 잠들었음. 은우가 3학년쯤 되었을 때, 문제집 푸는 것이 힘들었던 은우는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삭스와 신나게 논 뒤, 문제집을 들고 베란다 창문 아래로 내던짐

2. 답안 생략. 각자 자유롭게 답해보세요.

◎ 책 속으로 ③ 금서 속에서

- (예시답안)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빛을 보면 돌로 변하는 트롤에게 손전등이 책 벌레를 없애 주는 마법의 도구라고 속여 책의 마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었다.
- (예시답안) 한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귀할멈에게 희망을 주었다.
- (가이드)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하도록 합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그림 생략.

4. (가이드) 책을 사랑하는 마음,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는 습관 등 새로운 책의 마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답안 생략.

◎ 토론&논술\_ 책 읽기 VS 학원 공부

(예시답안1)

책 읽기가 더 중요하다.

근거: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보다도 공부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아지고 책 읽을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 우리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와 감동뿐이 아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배경지식을 쌓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도 있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모든 공부의 밑바탕이 되는 독해력과 어휘력, 사고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당장 학원 공부에 집중했던 것보다 나중에 더 공부를 잘 하게 될 수도 있다.

(예시답안2)

학원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근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교과목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늘어나고,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내용도 어렵다. 또한 교과목 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으며 중학교에 갈 준비도 미리 해야 한다. 따라서 책 읽기보다는 영어, 수학을 비롯해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창의융합 ① 새로운 포리표 만들기

(예시답안)

## [예시답안과 가이드]

◆ 용미와 한나 ◆

모험심 가득한 책의 마녀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잃어버린 책을 소개하는 BI 활동을 한다.

사는 곳: 서림 미용실 참고

### ◎ 창의융합 ② 책의 마녀 그리기

(가이드) 책의 마녀의 형체는 사람과 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하도록 합니다. 단, 책에 대한 모든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이 어울린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림 생략.